

#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완전무치악환자의 수복 -장착후 관리 및 문제점-

정재현교수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 연차약력

- 1978. 2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1981. 2 :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 전공의 수료
- 1984. 5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 1985. 5~1986. 3 : 미국 미시간 치과대학 방문교수
- 1994. 9~현재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장

무치악환자의 총의치 수복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지조직에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 시키며, 보철물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무치악환자의 총의치 수복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루어 내는데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무치악환자의 총의치 수복엔 실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제작된 총의치라 하더라도 장착후 관리 측면에서 보면 보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착후의 문제점을 그나마도 줄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의치 제작시부터 총의치 제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미리 고려하여 제작함으로써 장착후 문제점을 줄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총의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로는 적절한 지지, 적절한 유지, 근균형 및 교합균형에 의한 적절한 의치의 안정을 들수 있다.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무치악환자의 총의치 수복의 경우엔 이러한 지지, 유지 및 안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의치의 지지, 유지, 안정을 얻기 위한 임상적인 최대한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치의 안정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근균형 및 교합균형을 이루어 내는데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의치 장착시의 조절 및 장착 후 의치의 조절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심하게 흡수된 치조제를 가진 무치악환자의 총의치 수복의 경우, 의치 장착 후 환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보다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총의치의 조직면, 교합면, 연마면 관점에서 순서적으로 살펴 보고자한다.